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최근 고려대에 어떤 독지가가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630억 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1905년 개교 이래 최대이며 국내 대학의 단일 기부액으로는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의 카이스트 기부(766억 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라고 한다. 대학 관계자는 “이 독지가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의 미래 비전에 공감해 ‘통 큰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자가 코로나19 여파와 15년째 지속되는 등록금 규제 등으로 인해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에 대한 너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도약과 인류 발전을 위해 대학이 분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담에 어울리게 기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거액을 쾌척키로 결정한 것도 놀랍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실행한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부를 하는 자선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기부자에게 어떤 사연과 성공 스토리가 있는지, 고려대와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약속대로 철저히 입을 다물고 언론도

기부금은 과제물이다

더 이상 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 뉴스의 감동이 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이종근(82) 부영그룹 회장이 전남 순천의 고향 여섯 개 마을 주민 280여 명과 초중고 동창 80여 명에게 현금을 나눠주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주민들에게는 1인당 2600만~1억 원을 주었고, 초중고 동창생들에게는 5000만~1억 원씩 세금도 아예 공제하고 현금으로 주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선심이 의아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회장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기업인으로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과, 자라나는 과정에서 도움과 우정을 주고받은 친구들이 고마워 돈을 나눠준 것이라고 한다.

그의 기부는 미국 배우 조지 클루니가 2013년에 친구 14명에게 100만 달러(약 11억 원)씩 1400만 달러(155억 원)를 현금으로 준 일을 연상케 한다. 무명 시절에 경제적 기반이 없어 허덕이던 자신을 먹여 주고 재워 준 친구들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영화 수익금이 생기자 차라야 1400만 달러를 채우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즐거운 ‘기부 파티’를 벌였고, 증여세까지 다 내주었다. 그렇게 한 동기에 대해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거액의 기부와 정답고 두터운 우정이다 놀랍고 부럽다.

최근 국내 대학에도 기업인이나 독지가들의 크고 작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울 들어 경기대에 한 기업이 100억 원 규모의 기부를 약속한 바 있고, 모교 성균관대에 100억 원을 기부한 기업인이 있었다. 동국대에는

익명의 스님이 인재 양성 장학 기금 3억 원을 내놓았다. 기부금은 대학별 차등이 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부자들과 그 액수가 늘어나고 기부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재정난이 심해 총장들의 최우선 임무가 기부금 유치로 꼽힐 정도다.

고려대의 경우도 올 3월 신입 총장 취임 이후 ‘강한 고대’를 기치로 내걸고 기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630억 원의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거나 기부자를 설득해 자연계 중앙 광장 조성, 옥스퍼드-에일-고려대 연례 포럼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생색을 내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대학이 받은 기부금은 순전히 즐거운 선물이기보다 성실하고 정교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물과 마찬가지로이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지만, 대학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기부금을 받은 이후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학내외에 보고해야 옳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크게 보도됐으면 그 이후의 일도 학내 구성원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알도록 해야 한다. 대학 내의 단과대별 차이와 불평등 해소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선순환은 대학 스스로가 지향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청춘 특독



김정연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3년

요즘, 과거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지구 온난화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다. 어렸을 때 너무 당연하게 먹었던 비는 산성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봄에는 황사로, 여름에는 장마, 겨울에는 한파로 고생을 한다. 그렇다면 기온의 변화와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 또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가진 즈음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 클럽의 선정 도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읽게 됐다. 이 책은 과학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며, 기온의 상승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정도로 지구 온난화를 이해했었는데,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그 위험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구와, 대기, 바다의 순환에 대해 이해해야 했다.

먼저 지구에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이다. 구형은 위도에 따라 에너지를 불균등하게 받게 만들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저위도의 에너지는 고위도로 움직인다. 이런 에너지의 움

지구 온난화는 우리 존재의 문제

직임이 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대기의 순환은 크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따라 해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있다. 순환으로 인해 지상에는 각각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부는데, 이러한 바람의 방향에 따라 표층 해류 또한 순환한다. 북태평양의 경우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방향으로 표층 해류가 순환한다. 남태평양의 경우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 순환 해류, 페루 해류의 방향으로 순환한다. 해수의 표층 순환 중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쿠로시오 해류이다.

예로 들자면, 한국 주변에는 쿠로시오 난류와 북한 한류가 흐르는데, 이 두 해류가 만나는 지역을 조정 구역이라고 한다. 조정 구역에는 해류의 상승류나 하강류가 일어나 영양 염류가 위로 떠오르고, 미생물이 잘 번식할 여지가 발달한다. 이러한 조정 구역에서는 한류성,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좋은 어장은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한다.

또 무역풍 등의 대기 순환과 표층 해류의 순환은 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끼치고 날씨는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표층 해류와 다른 심층 해류라는 것도 존재한다. 심층 해류 또한 순환을 하는데, 이를 ‘열염 컨베이어 벨트’(Thermohaline conveyor belt)라고 한다. 열염 컨베이어 벨트는 낮은 염분에 높은 온도의 표층 해류가 순환한다. 극지방에 다다르면 온도가 낮아지고, 물이 얼음으로 얼며 수분 비율에 대한 염분이 높아져 침강한다. 침강한 고염 저온 심층 해류가 다시금 주위 바닷물

과 혼합돼 융승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심층 해류의 순환 역시 열에너지의 균형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는 이러한 순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간단하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순환의 고리가 끊기게 된다. 대기와 해수면의 순환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세계의 기후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마크 라이너스의 저서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을 읽은 후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 기후 온난화는 그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바닷물, 안 된다. 이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국가적인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이미 수많은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한 개발 도상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규제는 경제 위축을 가지고 오기에 선택 규제를 강화하기 힘들 것이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또한 기후 온난화의 문제는 결국 끊어진 순환의 고리를 다시 연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우리 존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재생 에너지 상용화, 교통수단의 개선, 산업 분야의 개선, 숲과 토양 관리, 해양 보호, 친환경 소비와 재활용, 식생활 개선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

기고



국민호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매년 7월 7일은 ‘도농 교류의 날’이다. 이는 일 년에 한 번 칠석날(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가 날개를 펴서 놓은 다리인 오작교에서 만나 사랑을 이룬다는 옛 이야기처럼,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뜻에서 2013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도농 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의 경제·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7월 말이 되면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올 여름 휴가는 농촌으로

이동이나 여행이 제한되어 왔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고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갈망이 큰 만큼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은 이들의 여름철 휴가 계획에 올여름 농촌의 푸근함과 함께 고요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농촌 여행을 추천한다.

농촌 여행지에 대한 정보 중 하나로는 농협이 주관하는 농촌 체험 브랜드 ‘팜스테이’(Farmstay)가 있다. 이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머문다는 뜻의 ‘스테이’(stay)의 합성어로 농가에서 숙박하면서 농사와 생활, 문화 체험,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 체험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팜스테이 마을은 전국에 300여 곳에 이르며, 계절별로 생애 문화 체험(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체험), 전통 공예 체험(짚신, 복소리, 솟대), 영농 체험(감자·옥수수·과일 수확), 전통 먹거리 체험(두부·한과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 국민들의 여가 수요의 증가와 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및 가족 단위 체험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외 소득 창출과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팜스테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족 여행은 물론 학생들의 농촌 체험 현장 학습과 같은 단체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에게는 고향의 향수와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도농 상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팜스테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farmstay.co.kr)에서 얻을 수 있다. ‘2023-2024 한 국민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이나 ‘전국의 팜스테이 마을 찾기’ 전국 농가 맛집 길라잡이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통해 적합한 장소를 찾아 맞춤형 피서를 보낼 수 있다.

이번 여름 휴가는 피서객들이 물리는 관광지보다는 우리 농촌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농촌 지역을 찾아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교육의 장이 되며,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도농 교류의 의미를 경험해 보자.

社說

최고 연구 대학 발돋움 한전공대 전폭 지원을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이 교육계와 학계, 산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최고의 연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개교 1년여 만에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센터, 초전도 연구센터, 차세대 그리드 센터 등 156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정부와 민간 기업 연구 과제도 336억 원여치나 수주했다.

이런 성과는 정부의 출연금 예산 삭감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켄텍은 독일 프라운호퍼 수소 에너지 연구소를 유치해 한국이 앞으로 세계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현재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수행 중인 동남아시아 수소 에너지 개발 사업에 켄텍이 사업 수행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켄텍은 학생과 교수가 200여

명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특허 12건, 논문 175건, 학술발표 148건을 쏟아내는 등 학술 분야에서도 쾌거를 거뒀다. 그럼에도 켄텍은 개교 1년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한국 전력의 재정난과 정부·여당 등 정치권으로부터의 외풍, 상급 기관의 감사 등이 맞물리면서 이제 막 첫발을 댄 신생 대학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에너지 분야 최고의 연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켄텍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대학 흔들기를 멈추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령 영아’ 보호할 사회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생 신고 없이 임신 신생아 변화만 가지고 있는 전국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임신 신생아 변화는 출생 신고 전 예방 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일급 자리 일련번호로,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 병원·보호자 인적 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이 변화만 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유령 영아’로 분류된다.

광주·전남에서 임신 신생아 변화만 가지고 있는 아동은 광주 50명, 전남 86명 등 136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조사를 진행한 뒤, 출생 신고 여부나 소재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광주 한 건, 전남에서는 네 건의

수사 의뢰가 경찰에 접수돼 기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유령 아동’의 충격적인 실태-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신고 없이 방치된 영유아가 2000명이 넘고, 그중 1%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최소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유기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미등록 영아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미등록 아동과 영아 유기를 막고자 지난달 말 출생 신고 통보의 주체를 부모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됐다. 나아가 국가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신생아 출생을 자동 등록하고 즉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하는 미국처럼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유령 영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모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풍성한 흰색 깃털을 지닌 백조는 오랫동안 우아함과 평화를 상징해 왔다. 호수를 평화롭게 헤엄치는 우아한 모습이 백조의 일반적 이미지였다. 발레 작품인 ‘백조의 호수’에서 청순하고 가냘픈 발레리나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700년대 호수와 뉴질랜드 등에서 흑조(black swan)가 발견되면서 기존 백조에 대한 선입견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로 인해 ‘고정 관념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던 블랙 스완의 뜻은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블랙 스완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레바논 출신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1987년의 블랙 먼데이, 2001년의 9·11 테러,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일단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블랙 스완으로 묘사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도 블랙 스완으로 불 수 있다. 국내에선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해 열린 확대 경영 회의에서 올 하반기 블랙 스완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 주목받기도 했다.

블랙 스완은 세계의 정치·경제·안보 환경 등이 요동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 안보 질서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 장기화되는 미·중 갈등,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등 일단 터지면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 즐비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탈세계화 등으로 국제 경제도 요동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제 공조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불확실성의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하다. 정치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레바논 출신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1987년의 블랙 먼데이, 2001년의 9·11 테러,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일단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블랙 스완으로 묘사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도 블랙 스완으로 불 수 있다. 국내에선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해 열린 확대 경영 회의에서 올 하반기 블랙 스완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 주목받기도 했다.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程厚棟 |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
| 편집부 | 220-0649 | 문화사업국 | 220-0541 |
| 정치부 | 220-0652 | (FAX 222-8005) | (FAX 222-0195) |
| 경제부 | 220-0663 | 기획관리국 | 227-9600 |
| 사회부 | 220-0642 | 사진부 | 220-0693 |
| 전남본부 | 220-0680 | 체육부 | 220-0621 |
| | | 디자인실 | 220-0536 |
| | | 서울지사 | 02-773-9331 |
| |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